

## 한국 미혼여성을 대상으로 한 결혼에 대한 양가태도 척도 개발 및 타당화

김 은 하

아주대학교

최 혜 운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권 민 혁<sup>†</sup>

아주대학교

본 연구에서는 사회심리 분야에서 오래전부터 주목받아온 개인의 양가적 태도에 초점을 맞춰 결혼에 대한 양가적인 태도를 측정하는 척도인 '한국 미혼여성을 대상으로 한 결혼에 대한 양가태도 척도'(Ambivalent Attitudes toward Marriage Scale for Korean Unmarried Women; AAMS)를 개발 및 타당화하였다. 이를 위해 선행 연구 고찰과 개방형 설문지를 실시하였고 전문가 자문을 거쳐 총 23개의 예비문항을 개발하였다. 이후 이성교제 중이며 미혼인 성인 여성을 대상으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2요인, 18문항이 도출되었다. 또한 다른 미혼 성인 여성 표본을 대상으로 두 번의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앞서 확인된 2요인 18문항으로 구성된 측정 모형이 적합함을 재확인하였다. 또한 AAMS의 수렴 및 준거관련 타당도를 살펴보기 위해 해외에서 개발된 결혼태도와 기대척도의 하위 척도인 결혼 의도와 결혼에 대한 태도, 친밀감에 대한 두려움 척도, 성인 애착 척도의 회피애착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AAMS의 학문적 의의, 활용방안 및 후속 연구에 대한 제언을 논의하였다.

주요어 : 결혼, 양가태도, 척도개발, 타당화

---

<sup>†</sup> 교신저자 : 권민혁, 아주대학교 심리학과, (16499)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산5-1(아주대학교) 울곡관 4285호  
E-mail : kmh891205@naver.com

지난 몇 십년동안 한국 사회에는 서양문화의 유입과 산업화로 인해 문화적, 정치적, 경제적으로 급격한 변화가 일어났고 이로 인해 가족, 결혼, 출산에 대한 가치관에도 변화가 있어왔다. 예를 들어, 과거와는 달리, 많은 20-30대 젊은이들이 결혼이나 출산을 필수가 아닌 선택으로 인식하고 있고, 실제로 90년대를 기점으로 미혼, 미혼, 결혼 기피 등이 증가하고 있다(김혜영, 선보영, 2011; 어성연, 김지연, 2013). 이러한 변화는 4차 산업 혁명 등으로 인한 경제침체, 저출산, 고령화 등으로 인한 인구 구조의 변화로 인해 한국사회의 주요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결혼 기피 현상과 미혼율의 증가가 저출산의 가장 핵심적인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결혼 기피 현상과 미혼율의 증가는 중요한 사회적 문제로 받아들여지고 있다(이정하, 박정운, 윤나나, 2017).

최근 한국인들의 결혼태도에 대한 '2018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에 따르면, 최근 미혼 인구의 결혼 필요성에 대한 인식과 결혼 의향이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서 나타나는 현상이었지만, 남성과 여성을 비교했을 때, 여성이 남성에 비해 결혼에 대해 더 부정적이고 유보적인 태도 및 낮은 결혼 의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가령, 결혼의 필요성에 대해 미혼 여성의 54.9%가 '해도 좋고 안 해도 좋다', 14.3%가 '하지 않는 게 낫다'라고 응답한 것에 반해 미혼 남성은 39.2%가 '해도 좋고 안 해도 좋다', 6.6%가 '하지 않는 게 낫다'라고 응답한 것으로 확인 되었다. 또한 미혼 여성의 45.3%, 미혼 남성의 58.8%가 '결혼할 의향이 있다'라고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여성의 결혼에 대한 태도는 언론보도와 관련 연구를 통해 그 이유를 찾아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여성의 학력과 경제활동 참여율이 상승하면서 여성들은 전통적인 성역할과 가족관계에 대해 부담(예. 취업 모로서의 스트레스, 경력단절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고 결혼에 대해 부정적이고 유보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김정석 2006; 이상림, 2019).

다만, 결혼에 대한 태도에서 한 가지 주목해야 할 점은, 결혼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낮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이 바로 결혼에 대한 부정적 태도나 적극적인 결혼 포기를 의미한다기보다는 결혼에 대한 유보적 태도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이상림, 2019). 즉, 일반적으로 미혼자들은 결혼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과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연결된 수직선상의 한 점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결혼에 대해 호의적 그리고 비호의적 태도를 동시에 가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는 심리학 연구에서 오랫동안 관심을 받아온 '양가태도'(ambivalent attitudes) 혹은 '양가성'(ambivalence)과 관련이 있는데, '양가태도' 혹은 '양가성'은 어떤 상황이나 대상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좋음)와 부정적인 태도(싫음)가 공존하는 상태(이미경, 김아름, 최성인, 남숙경, 이상민, 2010; Scott, 1966; Priester & Petty, 1996)로 무엇인가를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를 놓고 갈등하는, 다시 말해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요인간의 갈등 정도를 의미한다. Kachadourian Fincham과 Davila(2005)에 따르면, 개인은 어떤 집단이나 대상에서든 양가태도를 가질 수 있는데, 가령, 흑인이나 여성과 같은 특정 집단, 커피와 피자와 같은 음식, 감정표현, 결혼이나 이혼에 대해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태도를 지닐 수 있다. 양가태도를 측정하는 척도의 예로 King과 Emmons (1990)가 개발한 정서표현에 대한 양가성 척도

가 있는데, 이 척도는 “내 문제들에 대해 다른 사람과 정말 이야기하고 싶지만, 때때로 그러지 못한다”, “정서적 반응을 좀 더 즉각적으로 드러내고 싶지만, 그러지 못할 것 같다”와 같은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렇다면, 결혼에 대한 미혼자들의 양가태도는 어떠한가? 아직까지 결혼에 대한 양가태도에 대해 직접적으로 살펴본 연구는 없었지만, 결혼에 대한 태도의 단일차원 관점, 즉, 결혼에 대한 긍정적 혹은 부정적 태도에 대한 연구는 일부 실시되었다. 특히, 결혼에 대한 부정적 태도에 대해 살펴본 연구들이 있었는데, 먼저, 20대 중반에서 30대 후반 미혼 남녀를 대상으로 한 이정하, 박정운, 윤나나(2017)의 연구에서는 부모의 부정적인 결혼생활, 부정적인 연애 경험, 결혼에 뒤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감당하기 어려움, 결혼실패에 대한 두려움 등이 결혼에 대한 부정적 태도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비혼 선택을 통해 얻고자 하는 것은 혼자여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을 포기하지 않아도 됨, 누군가를 위해 희생하지 않고 자신을 위해 살 수 있음, 사회적 성취를 추구함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 다른 연구로, 2015년 ‘전국 출산력 조사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에 따르면, 미혼 남성은 결혼생활비용에 대한 부담, 낮은 소득, 실업상태 등 경제적인 요인으로 인해 결혼에 대해 유보적으로 생각하는 반면, 미혼 여성은 결혼보다 자신이 하는 일에 충실하고 싶고 상대방의 구속이 싫으며 남성 중심 결혼제도 때문에 결혼에 대해 유보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전통적으로 결혼은 당연히 해야 한다는 문화 때문인지 결혼하고 싶은 이유 혹은 결혼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는 이유

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다만, 결혼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과거에는 경제적 안정, 사회적 지위 획득, 자녀 출산 등의 실용적인 측면이 강조된 반면에 현재에는 애정, 동반자의 존재, 행복 추구 등의 정서적 측면이 강조되고 있다(백경숙, 김효숙, 2013). 또한 결혼 후 자녀를 출산하고 싶은 이유에 대해 살펴본 연구도 있었는데, 가령, 주영희, 정은숙, 심문숙(2013)의 연구에 따르면, 대학생들은 경제적 노후의존, 부모가 되고 싶은 꿈 실현, 가문계승, 사회적 의무 등으로 인해 자녀 출산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결혼에 대한 부정적 태도를 예측하는 요인을 살펴본 연구도 있었는데, 가장 많이 보고된 요인으로는 성역할태도가 있다. 예를 들어, Kaufman(2005)의 연구에서는 진보적인 혹은 양성평등적인 성역할태도를 가진 여성이 전통적인 성역할을 가진 여성에 비해 결혼에 대한 기대나 의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친밀감, 성적 활동 등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가질수록 결혼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실제 결혼을 할 가능성이 낮으며 결혼 한 후에는 배우자와 갈등을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Riggio & Weiser, 2008). 또한 Amato와 DeBoer(2001)의 연구에서는 부모의 부부갈등이나 이혼이 자녀의 성역할태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교육 수준, 취업 여부, 종교와 같은 인구학적 배경도 결혼에 대한 태도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교육 수준이 높고 직장이 있는 여성들이 결혼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낮고, 결혼을 늦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종교가 있는 사람이 결혼에 대한 동기와 의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

되었다(Gubernskaya, 2010).

한편, 기존의 결혼태도에 대한 대부분의 연구들은 비공식적 평가(informal assessment) 방법, 즉, 결혼을 얼마나 하고 싶은지, 결혼이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결혼 적령기는 언제라고 생각하는지 등을 묻는 방법을 통해 결혼에 대한 태도를 측정하였다(남순현, 2007; Gubernskaya, 2010). 이러한 방법은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표준화된 검사에 비해 신뢰도나 타당도 면에서 검증이 되지 않았고 연구간에 비교가 불가능하다는 한계점이 있다. 이에, 몇몇 연구자들이 결혼에 대한 태도를 측정하기 위한 표준화된 척도들을 개발하였는데, 먼저, Kinnard와 Gerrard(1986)이 개발한 '결혼에 대한 태도 척도'(The Attitudes Towards Marriage Scale)는 미혼 여성과 남성의 결혼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와 긍정적인 태도를 측정한다. 둘째, Gabardi와 Rosen(1991, 1992)이 개발한 '결혼에 대한 태도 척도'(The Attitudes Towards Marriage Scale)는 미혼 여성과 남성의 결혼에 대한 이상적인 태도와 결혼에 대한 개인적인 의문을 측정하는 척도이다. 또한 Braaten과 Rosen(1998)의 '결혼 태도 척도'(The Marital Attitude Scale)와 Pearl과 Galupo(2007)의 '동성 결혼에 대한 태도 척도'(The Attitudes Towards Same-Sex Scale)는 각각 이성애자의 결혼 그리고 동성애자의 결혼에 대한 일반적인 태도를 측정하기 위해 개발되었다. 이 외에도, 가장 최근에 해외에서 개발된 척도로는 Park과 Rosen(2013)의 '결혼태도와 기대 척도'(Marital Attitudes and Expectations Scale)가 있는데, 이 척도는 '결혼 의도', '결혼에 대한 태도', 바람직한 결혼에 필요한 '요인' 등의 3개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척도 역시 미혼 여성과 남성을 대상으로 한다.

또한 국내에서 개발된 척도로는 이세영과 홍달아기(2014)가 정윤경, 김경희, 배진아, 김찬아(1997)가 개발한 '결혼관 척도'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6)에서 사용한 결혼-자녀·양성평등에 관한 가치관 조사 내용을 참고로 수정 및 보완하여 미혼남녀 대학생을 대상으로 개발한 '결혼관을 측정하는 척도'가 있다. 이 척도는 '결혼의 의의', '배우자 선택조건 및 방법', '결혼과정과 생활설계', '결혼에 대한 시각' 등의 4개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결혼의 목적 및 동기, 배우자의 선택조건 및 방법, 결혼 과정 및 결혼 후 생활계획에 대한 태도, 자녀와 출산에 대한 시각 등을 측정한다. 또 다른 척도로, 남순현(2007)이 미혼 여성과 남성을 대상으로 개발한 '한국형 결혼관 척도'가 있는데, 이 척도는 궁합이나 남아선호와 같은 결혼에 대한 전통적인 의식이나 행동에 얼마나 동의하는지 측정하는 '전통적인 결혼', 신뢰나 가치관의 유사 등의 요소가 행복한 결혼에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를 측정하는 '성공적인 결혼', 결혼의 불합리성이나 모순에 대해 얼마나 동의하는지 측정하는 '결혼의 불합리성', 결혼이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를 측정하는 '결혼의 필요성', 동거에 대한 생각을 측정하는 '동거', 이혼과 재혼에 대한 생각을 측정하는 '이혼 및 재혼' 등의 6개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척도들은 결혼에 대한 태도가 개인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시대가 바뀌면서 개인의 결혼에 대한 태도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등과 관련한 경험적 근거를 마련하는데 기여하였다. 하지만 몇 가지 한계점을 지니는데, 먼저, 이 중 일부 척도는 신뢰도나 타당도 분석 및 요인분석이 실행되지 않았다는 한계가 있다(Braaten & Rosen, 1998; Park &

Rosen, 2013). 또한 신뢰도나 타당도가 검증된 해외 척도의 경우에는 미국이나 서양 국가를 대상으로 한 연구를 토대로 개발되었기 때문에 한국인들의 결혼에 대한 태도를 이해하고 측정하는데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결혼에 대한 태도가 사회문화적 요인과 시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Higgins, Zheng, Liu, & Sun, 2002), 기존의 해외에서 개발된 척도들을 번역하여 사용하기 보다는 한국의 문화와 가치관 반영한 척도를 개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더불어, 국내에서 개발된 척도를 포함한 모든 기존의 척도들은 남성과 여성을 구분하지 않고 개발되어 한국 여성들만의 경험을 반영하지 않았다는 한계점이 있다. 여러 연구를 통해 남성과 여성이 결혼에 대해 부정적이거나 유보적인 태도를 가지는 이유가 다를 수 있다는 점이 보고되었기 때문에, 각각의 성별 사회화 과정을 반영한 척도를 개발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국내 척도들은 배우자 선택조건 및 방법, 결혼 의도, 결혼 과정, 동거, 혹은 이혼 및 재혼에 대한 생각 등을 모두 측정하기 때문에 결혼 태도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는 데는 측정 대상이 너무 광범위하다는 문제점도 있다.

마지막으로, 기존 척도들의 또 다른 한계점은, 결혼에 대한 긍정적 혹은 부정적 태도를 양분화하여 측정하기 때문에 결혼에 대한 양가태도를 측정할 수 없다는 점이다. 즉, 기존 척도들은 결혼에 대한 높은 동기(접근요인)의 양과 낮은 동기(회피요인)의 양을 구분하여 측정함으로써 결혼에 대한 접근요인과 회피요인이 충돌했을 때(접근-회피 갈등), 다시 말해, 결혼에 대한 양가태도를 취하고 있을 때에는 이를 측정할 수 없다는 한계점이 있다는 것이다. 앞서 언급한대로, 최근 결혼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점차 낮아지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보고되고 있지만, 대부분 미혼자들의 결혼에 대한 태도는 단순히 부정적이라기보다는 양가적, 즉 긍정적인 태도와 부정적인 태도가 공존하는 상태일 가능성이 높다. 이와 같이, 일반적으로 사람들에게 결혼에 대한 높은 동기(접근요인)와 결혼에 대한 낮은 동기(회피요인)가 동시에 존재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결혼에 대한 개인의 양가태도에 초점을 맞춰 이를 측정할 수 있는 척도를 개발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국 미혼 여성들의 결혼에 대한 접근요인과 회피요인을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결혼에 대한 양가적 태도를 측정하는 척도, “한국 미혼여성들 대상으로 한 결혼에 대한 양가태도”(Ambivalent Attitudes Toward Marriage for Korean Unmarried Women; AAMS) 척도를 개발하고 타당화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결혼에 대한 양가적 태도를 결혼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접근 동기)와 부정적인 태도(회피 동기)가 공존하여 갈등하는 상태(접근-회피 갈등)로 정의하였다.

선행 연구를 통해, 친밀감에 대한 두려움과 성인애착 중에서 회피애착이 결혼에 대한 부정적 태도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는 점(Mosko & Pistole, 2010; Rholes Simpson, & Friedman, 2006; Toomey & Nelson, 2001)을 고려하여, AAMS의 수렴 타당도를 분석하기 위해 AAMS와 Park과 Rosen(2013)이 개발한 결혼태도와 기대 척도(Marital Attitudes and Expectations Scale; MAES)의 하위 척도인 ‘결혼에 대한 태도’, 친밀감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성인 애착의 회피 척도와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다. 또한 특정 행동에 대한 태도가 실제 그 행동을 할 의도로 이어질 수 있다는 Ajzen의 계획된

행동 이론(Ajzen's Theory of Planned Behavior; Ajzen, 1985)을 토대로, AAMS의 준거 관련 타당도를 분석하기 위해 AAMS와 MAES의 '결혼 의도' 하위 척도와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결혼의도에 대해 친밀감에 대한 두려움과 회피애착을 통제한 AAMS의 추가적 설명력을 확인하여 증분타당도를 확인하였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여러 실태조사에서 한국 여성들의 결혼에 대한 태도가 점차 달라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고, 혼인을 저하와 저출산이 최근 한국 사회에서 중요한 이슈로 논의되고 있지만 여성들이 어떤 이유로 그리고 얼마나 결혼에 대해 양가태도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관련 자료는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이러한 선행 연구의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한국 미혼여성을 대상으로 한 결혼에 대한 양가태도”(Ambivalent Attitudes Toward Marriage for Korean Unmarried Women; AAMS) 척도를 개발하고 이 척도의 수렴타당도, 준거관련 타당도 및 증분타당도를 검증하였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AAMS가 활발히 사용된다면 향후 미혼 여성들의 결혼에 대한 양가태도는 어떠한지, 양가태도와 관련한 요인은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고 이는 궁극적으로 한국사회의 저출산 제고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문제를 호소하는 내담자를 위한 상담 전략을 구상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 연구 1

연구 1에서는 기존문헌, 언론보도, 미혼여성을 대상으로 한 개방형 설문지 결과를 토대로 예비문항을 구성하였고, 예비문항을 대상으로

탐색적 요인분석과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 방 법

### 결혼에 대한 양가태도 척도 문항 개발

#### 연구 대상

AAMS의 문항 개발을 위해 전국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이성교제 중인 미혼 여성 100명을 대상으로 전문 설문조사 기관에 의뢰를 요청하여 전국단위의 온라인 설문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 관심이 있고 참여자 선정 기준(예, 만 19세 이상, 이성교제 중, 미혼, 여성)에 적합한 자는 누구든 연구에 참여할 수 있게 하였고, 연구 참여 제외기준은 없었다. 설문 참여자들은 모두 연구의 목적과 방법을 숙지하고 자발적으로 설문에 응답하였다. 설문 소요된 시간은 총 10분정도였으며, 참여자들은 3천원 상당의 기프트콘을 보상으로 받았다. 설문 참여자 중 미혼 여성의 평균연령은 30.1세 ( $SD=4.28$ )였으며, 학력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여성 8명(8.0%), 2년제 혹은 4년제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졸업한 여성 79명(79.0%), 대학원에 재학 중이거나 졸업한 여성 13명(13%)이었다. 또한 이들의 직업을 살펴보면, 일반 사무/관리자 52명(52%), 서비스직 10명(10%), 전문직 11명(11%), 자영업 2명(2%), 대학(원)생 13명(13%), 무직 12명(12%)이었다.

#### 문항개발 절차 및 결과

AAMS의 문항 개발은 김민선과 서영석(2016)이 제안한 절차대로 초점질문 개발(1단계), 이성교제 중인 미혼 여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실시 및 언론 보도 리뷰(2단계), 핵심 진술문

도출(3단계), 예비문항 선정(4단계)의 과정을 거쳐 진행되었다. 먼저, 1단계에서는 연구팀이 결혼에 대한 태도를 측정하는 척도와 관련 한 문헌을 살펴본 후 초점질문을 만들었고 관련 전문가 세 명으로 하여금 질문의 적절성을 평가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평정자들의 피드백을 반영하여 아래의 두 질문을 초점 질문으로 결정하였다. 1) “여성의 입장에서 결혼을 하고 싶은 이유와 결혼을 하고 싶지 않은 이유를 적어주십시오. 즉, 여성으로서 결혼을 하면 어떤 장점과 어려움이 있을지 가능한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와 2) “최근 결혼이 필수가 아닌 선택이라고 생각하는 여성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혼에 대한 인식 변화는 왜 발생하고 있을까요? 여성의 입장에서 가능한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2단계에서는 이러한 초점질문으로 구성된 설문지를 만 19세 이상, 이성교제 중인 미혼 여성 100명에게 실시하였다. 또한 구글, 네이버, 다음 등의 대규모 포털 사이트에서 ‘결혼’, ‘결혼의도’, ‘결혼관’, ‘결혼에 대한 태도’ 등의 키워드를 검색하여 관련 언론 보도, 블로그, 카페에 올라온 글을 읽고 결혼에 대한 여성들의 태도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였다. 특히, 언론 보도를 통해 나타난 여성들이 결혼을 기피하는 이유는 가부장적인 결혼제도, 출산휴가 제도, 부모님의 결혼 ‘실패’, 육아, 경력단절, ‘혼자’가 편함, ‘혼자’도 괜찮음, 경제적 부담(결혼비용, 주거비용, 양육비 부담), 집안일 부담, 시댁 부담, 자유의 부재, 자신을 위한 시간/비용의 어려움 등이 확인되었다.

3단계에서는 이 전 단계에서 수집한 내용을 토대로 결혼양가태도에 대한 35개의 진술문을 만들었다. 이 중 22개의 진술문은 결혼에 대한 양가태도 중 긍정적 측면이 더 강조되는

반면에 13개의 진술문은 부정적 측면이 더 강조되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4단계에서는, 관련 연구 경험이 있는 전문가 두 명으로부터 35개의 진술문에 대한 피드백을 받았고, 이들의 피드백을 반영하여 의미가 유사하거나 애매모호한 12개의 진술문(예, “평생 내 편이 생기는 것은 좋지만, 결혼 후 서로의 생활방식을 맞춰야 하는 건 힘들 것 같다”, “결혼하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결혼하면 직장생활에 집중하지 못할 것 같아 결혼이 망설여진다”, “혼자 사는 것이 익숙하고 편한 면도 있지만 결혼하며 덜 외로울 것 같다”)을 삭제하여 최종 23개의 진술문(예비문항)을 선정하였다. 또한 다른 전문가 두 명으로 하여금 23개 예비문항의 가독성과 적합성에 대해 5점 척도로 평가하게 하였고, 그 결과, 가독성은 평균 4.6점, 적합성은 4.5점으로 확인되었다. 기존의 결혼에 대한 태도 척도들을 참고하여 AAMS 각 문항은 7점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7=매우 그렇다)로 평정하도록 하였다.

#### 탐색적 요인분석

##### 연구 대상

만 19세 이상, 이성교제 중인 미혼 여성 250명을 대상으로 전문 설문조사 기관에 의뢰를 요청하여 온라인 설문을 실시하였다. 설문 참여자들은 모두 연구의 목적과 방법을 숙지하고 자발적으로 설문에 응답하였다. 설문에 소요된 시간은 총 10분정도였으며, 참여자들은 3천원 상당의 기프트콘을 보상으로 받았다. 참여자들의 평균연령은 27.55세( $SD=4.06$ )였고, 학력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여성 29명(11.6%), 2년제 혹은 4년제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졸업한 여성 208명(83.2%), 대학원에 재학 중이거나

나 졸업한 여성 13명(5.2%)이었다. 또한 이들의 직업을 살펴보면, 일반 사무/관리자 136명(54.4%), 영업직 3명(1.2%), 생산/노무직 1명(0.4%), 서비스직 16명(6.4%), 전문직 41명(16.4%), 자영업 5명(2.0%), 대학(원)생 31명(12.4%), 무직 17명(6.8%)이었다.

### 자료 분석

예비문항의 요인구조를 살펴보기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고, 신뢰도 검증을 위해 내적일관성 계수인 Cronbach's  $\alpha$ 를 산출하였다.

## 결 과

### 탐색적 요인분석

최종 선정된 23개의 문항에 대한 요인 구조를 확인하기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탐색적 요인을 시행하기 전에 KMO(Kaiser-Meyer-Olkin)와 Barlett 구형성 지표(Barlett's Test of Sphericity)를 확인하였고, 그 결과, KMO 표준 적합도 지수는 .908, Barlett 구형성 지표는  $\chi^2(253)=3042.509(p<.001)$ 로 나타나 해당 자료가 요인분석을 실행하기에 적합한 자료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주축 요인 분석과 사각 회전 방법으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고, 요인 수를 결정하기 위해, 고유값(eigenvalue)과 스크리 도표(scree plot)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고유값이 1 이상인 요인은 2개인 것으로 나타났고, 그림 1에 제시한 바와 같이, 스크리 도표에서도 3번째 요인 이후 고유값이 급격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요인수를 2개로 결정하였다. 다음으로, 요

인 수를 2로 고정하여 요인 간 상관성이 낮기 때문에 주축 요인 분석과 베리맥스 회전 방법을 사용하여 탐색적 요인분석을 재 실시 하였다. 그 결과, 요인부하량이 .40이하와 교차부하량이 .32 이상(Tabachnick, Fidell, & Osterlind, 2001)을 기준으로 삭제할 문항은 없었으나 공통설명량 .40이하이거나 1에 가까운 정도(Stevens, 2002)를 기준으로 5문항을 삭제하였다. 또한, 표 1에 제시한 바와 같이, 2요인의 누적 설명 변량은 51.833%였다. 각 요인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요인 1은 결혼에 대한 양가적 태도 중 부정적 태도를 강조한 13문항을 포함하고 있어, 요인명을 '결혼에 대한 부정적 양가성'으로 명명하였다. 이 요인의 고유치는 6.520으로 전체 변량의 36.220%를 설명하였다. 요인 2는 결혼에 대한 양가적 태도 중 긍정적 태도를 강조한 5문항을 포함하고 있어, 요인명을 '결혼에 대한 긍정적 양가성'으로 명명하였다. 이 요인의 고유치는 2.990으로 전체 변량의 16.613%를 설명하였다.

### 신뢰도 분석

신뢰도 분석 결과, 요인 1은 .927, 요인 2는 .865로 나타났고, 문항 제거 시 내적 합치도가 두드러지게 증가되는 문항은 없었다.

## 연구 2

연구 2에서는 연구 1의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가 다른 샘플 자료를 타당하게 설명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1. AAMS의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문항	1	2	h <sup>2</sup>	$\alpha$
요인 1 : 결혼에 대한 부정적 양가성				
2 결혼이 하고 싶다가도, 혹 이혼을 하게 되면, 여자가 더 손해라는 생각이 들어 결혼이 망설여진다.	.653		.427	
3 결혼하면 좋은 점도 많겠지만, 결혼으로 포기해야 하는 것들이 더 많을 것 같다.	.749		.568	
4 결혼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지만, 웬지 망설여진다.	.732		.563	
5 결혼하면 좋은 점도 많겠지만, 머느리로서 해야 할 일을 생각하면 결혼이 꺼려진다.	.730		.533	
6 결혼하면 심리적으로 안정감이 생긴다고들 하지만, 나만의 삶을 포기하게 될까봐 결혼이 꺼려진다.	.793		.651	
8 주위에서 명절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결혼이 하고 싶다가도 망설여진다.	.683		.467	
9 결혼해서 두 사람이 돈을 벌면 경제적으로 안정된다고들 하지만, 육아비용 등을 생각해보면 돈 쓸 곳이 더 많아 질 것 같다.	.699		.497	.927
10 부모님으로부터 독립하고 싶어 결혼하고 싶지만, 결혼이 또 다른 구속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671		.450	
11 결혼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나의 커리어(일)가(이) 더 중요하다.	.625		.458	
12 평생 내 편이 생기는 것은 좋지만, 결혼 후 서로의 생활방식을 맞춰야 하는 건 힘들 것 같다.	.705		.497	
13 결혼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지만, 성격차이나 가족문제 등으로 남편과 많은 갈등을 겪게 될까봐 결혼이 망설여진다.	.766		.586	
14 결혼해서 내 가정을 만들고 싶지만, 출산과 육아가 부담스러워 결혼하는 것이 망설여진다.	.721		.525	
18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더라도, 여성에게 결혼은 '손해'라는 생각이 든다.	.653		.439	
요인 2 : 결혼에 대한 긍정적 양가성				
1 결혼하면 미혼일 때 보다 덜 자유로울 것 같지만 노후에 외롭지 않을 것 같다.	.689		.479	
7 나 자신의 삶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결혼해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하는 삶도 의미 있을 것 같다.	.685		.471	.865
15 지금은 일이 중요하지만, 나중에 생각해서 결혼하는 게 낫다고 생각한다.	.776		.607	
16 결혼하면 책임져야 할 일이 많겠지만, 사랑하는 사람과 행복하게 살기 위해 결혼하고 싶다.	.762		.581	
17 현재 미혼으로의 삶에 만족하지만, 나중에 생각하면 결혼하는 게 더 좋을 것 같다.	.844		.713	
요인 1 설명변량(%)	36.220			.889
요인 2 설명변량(%)	16.613			
누적설명변량(%)	51.833			

연구 참여자 및 자료 수집 절차

연구 1과 동일하게 만 19세 이상, 이성교제 중인 미혼 여성 200명을 대상으로 전문 설문 조사 기관을 통해 온라인 설문을 실시하였다. 설문 참여자들은 모두 연구의 목적과 방법을 숙지하고 자발적으로 설문에 응답하였다. 설문에 소요된 시간은 총 15분정도였으며, 참여자들은 3천원 상당의 기프티콘을 보상으로 받았다. 연구 참여자들의 평균 연령은 28.12세 ( $SD=4.79$ )였고, 최종학력은 고등학교 졸업 23명(11.5%), 2년제 혹은 4년제 대학교 졸업 163

명(81.5%), 대학원 졸업 14명(7.0%)이었다. 직업은 일반 사무/관리자 98명(49.0%), 생산/노무직 3명(1.5%), 서비스직 24명(12.0%), 전문직 33명(16.5%), 자영업 7명(3.5%), 대학(원)생 17명(8.5%), 무직 18명(9.0%)이었다.

결 과

확인적 요인분석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확인한 2요인, 18

표 2. 확인적 요인분석 모형적합도 결과

모형	적합도 지수				
	$\chi^2$	df	CFI	IFI	RMSEA
2요인	325.835***	134	.905	.905	.085
1요인	789.052***	135	.674	.677	.156

\*\*\*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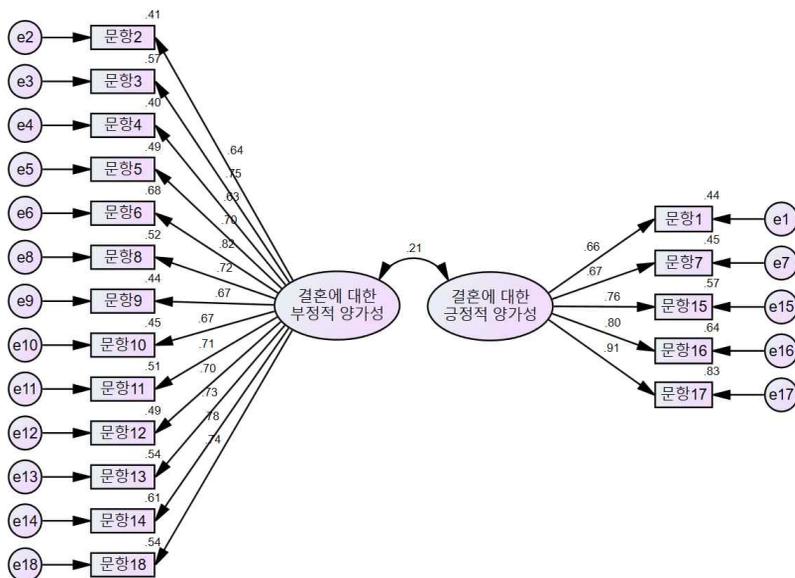


그림 2. 2요인 확인적 요인 분석 모형

문항의 모형에 대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모형인 2요인 모형과의 적합도를 비교하기 위해 1요인 모형의 확인적 요인 분석도 함께 실시하였다. 적합도 지수인 CFI, IFI는 .90 이상이면 좋은 적합도로 볼 수 있고, RMSEA는 .08 미만이면 괜찮은 적합도, .08 이상부터 .10이하는 보통 수준의 적합도로 해석할 수 있다(홍세희 2000). 본 연구의 결과, 표 2에 제시한 바와 같이, 2요인 모형의 적합도는 1요인 모형보다 더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CFI와 IFI가 .90 이상, SRMR는 .10 미만이기 때문에 2요인 모형은 수용할 만한 수준인 것으로 판단하였다. 또한 측정모형을 분석한 결과, 그림 2와 같이, 1요인과 2요인은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각 문항들의 요인부하량이 .630에서 .909로 모두 .50 이상,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 연구 3

연구 3에서는 연구 2의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가 다른 이성교제 중인 미혼 여성의 자료를 타당하게 설명하는지 재확인하기 위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고 AAMS의 수렴 및 준거 관련 타당도를 살펴보기 위해 관련 변인들과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다.

#### 연구 참여자 및 자료 수집 절차

연구 3에서는 연구 1 및 연구 2와 동일하게 만 19세 이상, 이성교제 중인 미혼 여성 300명을 대상으로 전문 설문조사 기관을 통해 온라인 설문을 실시하였다. 설문 참여자들은 모두 연구의 목적과 방법을 숙지하고 자발적으로

설문에 응답하였다. 설문에 소요된 시간은 총 15분정도였으며, 참여자들은 3천원 상당의 기프티콘을 보상으로 받았다. 연구 참여자들의 평균 연령은 27.59세( $SD=4.17$ )였고, 최종학력은 고등학교 졸업 33명(11.0%), 2년제 혹은 4년제 대학교 졸업 250명(83.3%), 대학원 졸업 17명(5.7%)이었고, 직업은 일반 사무/관리직 164명(54.7%), 영업직 18명(8.2%), 서비스직 22명(7.3%), 전문직 50명(16.7%), 자영업 4명(1.3%), 전문직 13명(5.9%), 대학(원)생 35명(11.7%), 무직 20명(6.7%)이었다.

#### 측정 도구

##### 결혼에 대한 양가태도

본 연구에서 개발한 결혼에 대한 양가태도(Ambivalent Attitudes Toward Marriage: AAMS)는 미혼 여성들의 결혼에 대한 양가적 태도를 측정한다. 이 척도는 총 18문항, 2개 하위요인('결혼에 대한 긍정적 양가성', '결혼에 대한 부정적 양가성')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7점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7=매우 그렇다)로 응답하도록 되어 있고, 총점이 높을수록, 결혼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와 부정적인 태도가 공존하며 갈등이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또한, 요인 1('결혼에 대한 부정적 양가성')의 점수가 높을수록, 결혼에 대한 양가적 태도에서 부정적인 태도가 더 강함을 의미하는 반면 요인 2('결혼에 대한 긍정적 양가성')의 점수가 높을수록, 결혼에 대한 양가적 태도에서 긍정적인 태도가 더 강함을 의미한다.

##### 결혼에 대한 태도와 결혼 의도

본 연구에서는 AAMS의 수렴 및 준거 관련 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해 Park과 Rosen(2013)이

개발하고 본 연구자들이 한국어로 번안한 결혼태도와 기대 척도(Marital Attitudes and Expectations Scale; MAES)를 사용하여 결혼에 대한 태도와 결혼 의도를 측정하였다. 이 척도는, 총 36문항, 3개 하위요인(‘결혼에 대한 태도’, ‘결혼 의도’, 바람직한 결혼에 필요한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결혼에 대한 태도’와 ‘결혼 의도’를 측정하는 14 문항만을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7점 척도(1=매우 동의하지 않는다, 7=매우 동의한다)로 응답하도록 되어 있고, 점수가 높을수록, 결혼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이고 결혼 의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Park 등(2013)의 연구에서 이 척도의 내적일치도(Cronbach's  $\alpha$ )는 ‘결혼에 대한 태도’는 .84, ‘결혼 의도’는 .90으로 나타났고, 본 연구에서는 ‘결혼에 대한 태도’는 .89, ‘결혼 의도’는 .86으로 나타났다. 문항의 예로는 “결혼하는 것은 유익한 일이다”(결혼에 대한 태도), “결혼하는 것은 ‘좋은 아이디어’이다”(결혼에 대한 태도), “나는 언젠가는 결혼을 할 용의가 있다”(결혼 의도)가 있다.

#### 친밀감에 대한 두려움

본 연구에서는 AAMS의 수렴 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해 Sobral과 Costa(2015)이 개발하고 권민혁, 김은하, 신희천(2017)이 한국어로 번안 및 타당화한 한국판 친밀감에 대한 두려움 구성요소 척도(Fear of Intimacy Components Questionnaire: FICQ)를 사용하여 친밀감에 대한 두려움을 측정하였다. 이 척도는 총 10문항, 2개 하위요인(‘타인을 잃는 것에 대한 두려움’, ‘자신을 잃는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5점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다)로 응답하도록 되어 있고, 총점이 높을수록, 현재 파트너(연인)와의

관계에서 친밀감에 대한 두려움이 높음을 의미한다. 권민혁 등(2017)의 연구에서는 이 척도의 내적일치도(Cronbach's  $\alpha$ )는(Cronbach's  $\alpha$ )는 .82인 것으로 나타났고, 본 연구에서는 .87로 나타났다. 문항의 예로는 “나는 파트너에게 나의 약점을 감추려 노력한다”, “파트너가 실망하지 않도록 나는 때때로 진실을 숨긴다”가 있다.

#### 회피애착

본 연구에서는 AAMS의 수렴 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해 Brennan, Clark와 Shaver(1998)가 개발하고 Fraley, Waller와 Brennan(2000)이 개정하고 김성현(2004)이 한국어로 번안 및 타당화한 친밀한 관계경험검사 개정판(Encounter in Close Relationship Scale-Revised: ECRS-R)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36문항, 2개 하위요인(‘불안애착’, ‘회피애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회피애착, 즉, 친밀한 관계에 대한 불편함으로 타인에게 의존하는 것을 회피하는 경향을 측정하는 18문항만을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7점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7=매우 그렇다)로 응답하도록 되어 있고, 총점이 높을수록, 회피애착의 성향이 강함을 의미한다. 김은하와 정채영(2016)의 연구에서는 이 척도의 내적일치도(Cronbach's  $\alpha$ )는 .93으로 나타났고, 본 연구에서는 .92로 나타났다. 문항의 예로는 “다른 사람들과 지나치게 가까워지는 것은 원치 않는 편이다”, “다른 사람들이 내게 가까워지려고 하면 불편하다”가 있다.

#### 결 과

확인적 요인분석

2요인, 18문항 모형에 대한 적합도를 재확인하기 위하여 연구 2와 동일한 방법으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했다. 그 결과, 표 3에 제시한 바와 같이, 2요인 모형의 적합성을 재확인하였다. 또한, 측정모형을 분석한 결과, 그림 3과 같이, 요인 1과 요인 2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각 문항들의 요인부하량이 .630에서 .909로 모두 .50 이상,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타당도 분석

AAMS의 수렴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비교의 준거로서 MAES의 하위 척도인 '결혼에 대한 태도'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표 4에 제시한 바와 같이, AAMS총점과 AAMS의 요인 1('결혼에 대한 부정적 양가성')은 MAES의 하위척도인 '결혼에 대한 태도'와 유의한 부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결혼에 대한 강한 양가태도와 '결혼에 대한 부정적 양가성'은 낮은 수준의 결혼에 대한 긍정적 태도와 관련이 있다는 것이다. 이와 반대로, AAMS의 요인 2('결혼에 대한 긍정

표 3. 확인적 요인분석 모형적합도 결과

$\chi^2$	df	적합도 지수		
		CFI	IFI	RMSEA
388.117***	134	.905	.905	.080

\*\*\*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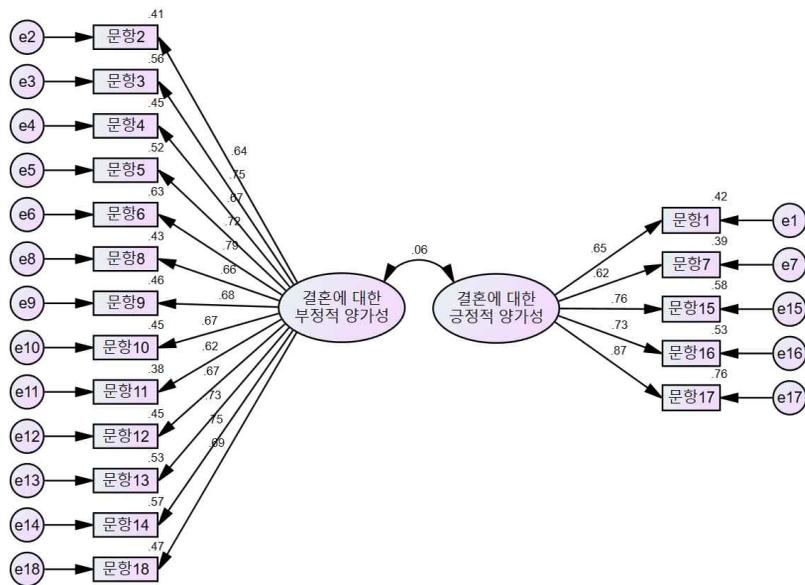


그림 3. 2요인 확인적 요인 분석 모형

표 4. 수렴 및 준거관련 타당도 분석

	결혼 의도 (MAES)	결혼에 대한 태도 (MAES)	친밀감에 대한 두려움	회피 애착	<i>M</i>	<i>SD</i>
1. AAMS 총점	-.443**	-.582**	.365**	.161**	5.679	1.057
2. AAMS 요인 1	-.348**	-.367**	.356**	.194**	5.713	1.212
3. AAMS 요인 2	.265**	.631	-.155**	-.187**	4.892	1.013
<i>M</i>	3.958	3.685	3.159	3.901		
<i>SD</i>	1.411	1.022	.746	.709		

\*\*  $p < .01$ ; AAMS = 결혼에 대한 양가태도 척도(본 연구에서 개발한 척도); AAMS 요인 1 = 결혼에 대한 부정적 양가성, AAMS 요인 2 = 결혼에 대한 긍정적 양가성

적 양가성)과 MAES의 하위차원인 '결혼에 대한 태도'간에는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친밀감에 대한 두려움과 회피애착과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AAMS 총점과 AAMS의 요인 1(결혼에 대한 부정적 양가성)은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인 반면 AAMS 요인 2(결혼에 대한 긍정적 양가성)은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높은 수준의 친밀감에 대한 두려움과 회피애착이 결혼에 대한 양가태도와 관련이 있다는 것으로, AAMS의 수렴 타당도를 입증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마지막

으로, AAMS의 준거관련 타당도를 알아보기 위해 AAMS와 MAES의 하위 척도인 '결혼 의도'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AAMS 총점과 AAMS 요인 1(결혼에 대한 부정적 양가성)은 유의한 부적 상관을 AAMS 요인 2(결혼에 대한 긍정적 양가성)은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AAMS의 증분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AAMS가 결혼의도에 대한 친밀감에 대한 두려움과 회피애착의 설명량 외에 추가적인 설명을 제공하는지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 친밀감에 대한 두려움이나 회피애착이

표 5. 증분타당도 분석

단계	변인	$\beta$	<i>t</i>	$R^2$	$\Delta R^2$	$\Delta F$
1	친밀감에 대한 두려움	-.073	-1.244	.043	.043**	6.771**
	회피애착	-.178	-3.054**			
2	친밀감에 대한 두려움	-.028	-.462	.116	.072**	12.901**
	회피애착	-.156	-2.756***			
	결혼에 대한 양가태도(AAMS)	-.290	-4.923***			

\*\*  $p < .01$ , \*\*\*  $p < .001$

이성관계나 결혼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 연구의 결과(성정아, 홍혜영, 2014; Reis & Grenyer, 2004)를 토대로 친밀감에 대한 두려움과 회피애착의 설명량을 통제된 상태에서 AAMS가 결혼의도의 추가적인 변량을 설명하는지 살펴보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예측 변인으로 1단계에서는 친밀감에 대한 두려움과 회피애착을, 2단계에서는 AAMS를 투입하였다. 그 결과, 표 5와 같이, AAMS가 결혼의도에 대해 추가적으로 설명하는 양은 약 7.2%인 것으로 나타났다.

### 종합논의

지난 몇 십년동안 한국을 포함한 많은 문화권에서 결혼에 대한 태도가 유보적으로 변화하고 출산율이 하락하면서 결혼에 대한 태도를 살펴보는 연구가 일부 진행되었다. 이를 위해 결혼에 대한 태도를 측정하기 위한 몇몇 척도들이 개발되었는데, 이 중 일부는 신뢰도나 타당도 면에서 검증이 되지 않았고 서양인들의 결혼관만을 반영하였으며 여성과 남성의 결혼에 대한 태도를 구분하지 않아 성별에 따른 상이한 결혼에 대한 태도를 측정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또한 기존의 모든 척도들은 결혼에 대한 긍정적 태도나 부정적 태도를 따로 구분하여 측정하기 때문에 결혼에 대한 유보적인 태도 혹은 양가적인 태도, 즉 결혼하고 싶은 욕구(접근동기)와 결혼하고 싶지 않는 욕구(회피동기)간의 갈등을 측정하지 못한다는 한계점이 있다. 많은 연구를 통해 일반적으로 개인은 어떤 행동이나 대상에 대해 완전히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기 보다는 양가태도를 보인다는 결과가 보

고되었고(이미경 등, 2010) 실제로 한국의 미혼자들이 결혼에 대해 양가태도를 보인다는 점(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8)을 고려할 때, 결혼에 대한 양가태도를 측정하는 척도를 개발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미혼 여성 고유의 결혼에 대한 양가태도를 측정하는 척도인 '한국 미혼여성을 대상으로 한 결혼에 대한 양가태도 척도'(Ambivalent Attitudes toward Marriage Scale for Korean Unmarried Women; AAMS)를 개발 및 타당화하였다. 또한 이성 교제 중이면서 미혼인 성인 여성들을 대상으로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AAMS의 요인구조를 분석하였고 수렴타당도, 준거 관련 타당도 및 신뢰도를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요약하고 시사점을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AAMS의 요인구조 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요인부하량이 .40미만, 둘 이상의 요인에서 .32이상의 요인부하량을 나타내는 문항은 없는 반면 공통설명량이 .40이하인 문항이 5개로 나타나 해당 5문항을 삭제하였다. 또한 고유값과 스크리도표를 살펴본 결과, AAMS는 두 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다른 두 표본을 대상으로 한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서도 재확인되었는데, 즉, 두 번의 확인적 요인분석에서도 2요인 모형의 적합도가 수용 가능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기존의 결혼관을 측정하는 척도들이 결혼에 대한 긍정적 태도와 부정적 태도라는 두 가지 요인으로 구성된 것과 일맥상통하는 결과로, 본 연구에서 개발한 AAMS도 긍정적 태도가 강조되는 양가적 태도와 부정적 태도가 강조되는 양가적 태도를 측정하는 두 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었다.

둘째, AAMS의 수렴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해 Park과 Rosen(2013)이 개발한 결혼태도와 기대척도(Marital Attitudes and Expectations Scale; MAES)의 하위 척도인 '결혼에 대한 태도', 친밀감에 대한 두려움 척도 그리고 성인애착 중 회피애착 척도와와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먼저 AAMS와 긍정적인 결혼에 대한 태도를 측정하는 MAES의 하위척도인 '결혼에 대한 태도'가 유의한 부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결혼에 대한 부정적 측면을 강하게 인식한 상태에서 결혼에 대해 양가적인 태도를 취할 경우에는 결혼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가 낮다는 것이다. 이는 AAMS가 측정하는 결혼으로 인한 책임과 의무에 대한 부담, 자아실현을 우선시 하는 가치관, 결혼생활과 직장생활간의 갈등에 대한 두려움 등이 결혼에 대한 부정적 태도와 관련 있다는 선행연구(여성연, 김지연, 2013; 이정하 외, 2017)와 일맥상통하는 결과이다. 또한 AAMS는 친밀감에 대한 두려움과 및 회피애착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는데, 이러한 결과는 친밀감에 대한 두려움과 회피애착이 높을수록, 결혼에 대해 양가적 태도가 강하다는 선행 연구의 결과(Mosko & Pistole, 2010; Rholes Simpson, & Friedman, 2006; Toomey & Nelson, 2001)와 그 맥을 같이 한다. 이처럼 AAMS가 결혼에 대한 태도, 친밀감에 대한 두려움 및 회피애착과 관련이 있다는 결과들은 AAMS의 수렴타당도가 지지되었음을 시사한다.

셋째, AAMS의 준거 관련 타당도를 분석하기 위해 MAES의 하위 척도인 '결혼 의도'와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유의한 부적 상관이 나타났다. 즉, 결혼에 대한 양가태도가 강할수록 결혼의도가 낮다는 것으로, 이는 최근 결혼에 대한 유보적인 태도가 강해지면서 결혼

의향과 실제 결혼률이 낮아지고 있다는 실태 및 통계조사(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8)와 그 맥을 같이 한다. 결혼에 대한 태도가 결혼의도와 관련이 있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Ajzen의 계획된 행동 이론(Ajzen's Theory of Planned Behavior; Ajzen, 1985)과 결부시켜 해석할 수 있는데, 이 이론에 따르면, 대부분의 행동에는 의도가 있으며 의도는 태도, 주관적 규범, 행동능력 자각이라는 세 가지 요인의 영향을 받는다. 예를 들어, 전문적인 도움 추구(예. 상담소를 찾음)를 예측하는 요인으로 전문적인 도움 추구 의도가 있고, 이는 전문적인 도움 추구에 대한 태도, 전문적인 도움 추구에 대해 지각하는 사회적 규범 그리고 전문적인 도움을 추구할 수 있다는 능력을 지각했는지의 여부에 의해 달라진다. 이를 결혼에 적용시켜보면, 가령 결혼의 결과가 긍정적으로 예상된다면 결혼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형성하게 되고 이로 인해 결혼의도가 높아지고 이는 궁극적으로 결혼 여부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AAMS와 결혼의도간의 관계에 대한 본 연구의 결과는 AAMS의 준거 관련 타당도가 지지되었음을 시사한다.

넷째, AAMS의 요인 1('결혼에 대한 부정적 양가성')과 요인 2('결혼에 대한 긍정적 양가성')를 구분하여 MAES의 하위 척도인 '결혼에 대한 태도', '결혼의도' 그리고 친밀감에 대한 두려움과 회피애착과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요인 1('결혼에 대한 부정적 양가성')은 '결혼에 대한 태도'와 '결혼의도'와 부적 상관이 있는 반면 요인 2('결혼에 대한 긍정적 양가성')는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요인 1('결혼에 대한 부정적 양가성')은 친밀감에 대한 두려움과 회피애착과 정적 상관을 보인 반면 요인 2('결혼에 대한 긍정적

양가성)은 친밀감에 대한 두려움과 회피애착과 부적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AAMS의 두 하위요인이 상반되는 개념이라는 것으로, 요인 1(‘결혼에 대한 부정적 양가성’)은 결혼에 대한 양가태도를 가지면서도 부정적인 태도가 강함을 의미하는 반면 요인 2(‘결혼에 대한 긍정적 양가성’)은 긍정적인 태도가 강함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회귀분석 결과, 친밀감에 대한 두려움과 회피애착을 통제된 상태에서, AAMS가 결혼의도를 부정적으로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Ajzen과 Fishbein (1980)의 합리적 행동이론(Theory of Reasoned Action; TRA)과 결부시켜 해석할 수 있는데, 이 이론에서는 사람들의 행동은 일련의 이성적인 판단에 의해 결정된다고 가정한다. 즉, 행동에 대한 가장 직접적인 선행 요인은 행동을 수행하고자 하는 의도이고, 의도의 선행 요인은 태도이며, 태도는 행동의 결과에 대한 기대로 예측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계를 결혼에 대한 양가태도 및 결혼의도와 연관시켜보면, 결혼에 대한 양가적인 태도는 낮은 수준의 결혼의도를 예측하고, 이는 실제 결혼 행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AAMS는 결혼에 대한 양가태도를 측정하기 위해 개발된 척도이지만, 결혼 의도와 결혼 가능성에 대해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는 척도라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의의를 살펴보면, 먼저,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미혼 여성들이 가진 결혼에 대한 부정적·긍정적 인식을 함께 탐색함으로써 기존에 결혼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에만 초점을 맞춘 기존의 연구들과 달리(어성연, 김지연, 2013; 이정하 외, 2017), 결혼하고 싶은 태도(접근 동기)와 결혼하고 싶지 않은 태도(회피

동기)가 혼재하는 양가태도 즉, 결혼에 대한 접근·회피 갈등을 측정하는 척도를 개발하였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많은 미혼 여성들이 결혼에 대해 긍정 혹은 부정적인 태도 중 한 가지만 가지고 있다기 보다는 유보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이상림, 2019), AAMS는 점차 감소하고 있는 결혼에 대한 동기 및 결혼률을 이해하는데 보다 풍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 개발한 AAMS는 결혼에 대한 양가적 태도이지만 긍정적 태도가 좀 더 반영된 ‘결혼에 대한 긍정적 양가성’과 부정적 태도가 좀 더 반영된 ‘결혼에 대한 부정적 양가성’이라는 두 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어, 양가적 상태이면서도 긍정 혹은 부정 중 어떤 쪽의 태도가 더 강한지 측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셋째, 기존의 결혼태도 척도가 성별을 구분하지 않고 개발된 것과 달리, 본 연구에서는 한국 미혼 여성의 경험과 의견을 반영하여 여성에게 특화된 결혼태도 척도를 개발하였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결혼에 대한 태도가 문화에 따른 성역할 태도 및 사회과 과정과 깊은 관련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Kaufman, 2005; Riggio & Weister, 2008), 본 연구는 향후 성별에 따라 상이한 결혼에 대한 태도를 연구하는데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본 연구를 바탕으로 결혼에 대한 여성의 양가태도와 관련한 변인 그리고 더 나아가 결혼에 대한 남성의 양가태도에 대한 후속 연구가 실시된다면 성별에 따른 양가태도에 대한 이해를 한층 더 넓히고 관련 정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더불어, 본 연구에서 개발한 AAMS는 상담 장면에서도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데, 특히 결혼에 대해 고민하는 내담자를 상담할

시, 상담자는 AAMS의 문항을 토대로 내담자가 어떤 이유로 결혼에 대해 양가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탐색하고 이에 대한 대처방안을 수립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예를 들어, 내담자가 결혼과 직장 생활을 병행하는데 있어 어려움을 예상하여 결혼에 대해 양가태도를 가지고 있다면, 내담자로 하여금 자신의 미래에 대한 목표와 가치관을 명확히 이해하고 결혼에 대해 결정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겠다. 또한 경제적인 이유로 결혼에 대해 고민하는 내담자의 경우에는 결혼비용자금부터 결혼 후 돈관리에 이르기까지 가능한 구체적인 계획과 해결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만약 내담자가 결혼에 대해 지나치게 높거나 낮은 기대를 가지고 있다면 결혼에 대해 보다 더 객관적이고 유연한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돕고 자신의 여러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여 결혼에 대한 결정을 내리고 관련 계획을 세울 있도록 격려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또한 AAMS를 상담 현장이나 연구 목적으로 사용하는 데 있어 몇 가지 유의할 점이 있는데, 먼저, 내담자의 결혼에 대한 양가태도를 무조건 부정적으로 간주하지 말고 이에 대해 수용 및 공감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특히, 내담자의 결혼에 대한 양가태도가 한국 사회에 여전히 존재하는 가부장적이고 전통적 성역할태도와 기혼 여성에 대한 차별적인 직장문화와 관련이 있다는 점(김혜영, 선보영, 2011)을 유념하여 내담자의 이러한 양가태도를 충분히 탐색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내담자로 하여금 자신의 삶의 목표와 가치관을 충분히 탐색 및 인식하고 궁극적으로 결혼에 대해 최선의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겠다. 둘째, AAMS가 기존의 연구, 언론

보도, 100명의 한국 미혼 여성의 의견을 토대로 개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여성들의 결혼에 대한 양가태도를 반영하지는 못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상담자나 연구자는 AAMS를 결혼에 대한 양가태도를 탐색하는 하나의 도구로 활용하고, 필요하다면, 추가 질문을 통해서 더 구체적으로 결혼에 대한 양가태도를 가지는 이유를 탐색할 필요가 있겠다. 또한 AAMS를 연구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AAMS의 총점은 결혼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와 부정적인 태도가 공존하는 갈등 정도를 측정할 때 사용하는 반면 요인 1(‘결혼에 대한 긍정적 양가성’)과 요인 2(‘결혼에 대한 부정적 양가성’)는 양가적인 상태에서 긍정 혹은 부정 중 어떤 쪽의 태도가 더 강한지 측정할 때 사용할 수 있다. AAMS의 총점뿐만 아니라 요인 1(‘결혼에 대한 긍정적 양가성’)과 요인 2(‘결혼에 대한 부정적 양가성’)를 구분하여 살펴봄으로써 각각이 어떤 변인들과 상이한 관련성을 갖는지 알아볼 수 있겠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척도 개발의 타당성 확보를 위하여 세 번에 걸친 설문조사 실시를 통해 각각 다른 표집을 대상으로 탐색적 요인분석과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하지만 여러 번의 자료수집과 분석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결과를 모든 한국 미혼여성으로 일반화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특히 본 연구 참여자들의 절반 이상이 일반 사무/관리자이었던 것에 반해 고졸 이상의 학력을 가진 20세~49세 여성 근로자의 40%정도가 일반 사무/관리직에서 근무한다는 점(국가통계포털, 2017, 2018)을 고려할 때, 후속 연구에서는 더 다양한 직업군의 미혼 여성을 대상으로 AAMS의 추가 타당화 작업을 할

필요가 있겠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AAMS의 예비문항 개발 과정에서 결혼에 대해 긍정적 혹은 부정적 태도를 가지는 이유로 경제적 문제, 결혼으로 인한 책임과 의무, 자아실현 및 사회적 성취문제, 노후문제 등 기존의 연구 결과(백경숙 외, 2013; 이정하 외, 2017; 주영의 외, 2013)와 일치하는 다양한 이유가 나타났다. 구성타당도 과정에서 이러한 이유들이 하위요인으로 변별되지 않았다는 한계점이 있다. 이는 한국 미혼 여성의 결혼에 대한 양가태도가 특정한 영역에 국한되어 나타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되나, 후속 연구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결혼에 대한 양가태도를 세분화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셋째, AAMS는 한국의 문화적 배경과 미혼여성들의 실제 경험을 반영하여 개발되었기 때문에 전통적인 성역할과 시대와의 관계에 대한 부담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었다. 이에, 후속연구에서는 전통적인 성역할에 대한 태도, 양가적 성차별주의 등을 측정하는 척도를 포함하여 AAMS의 수렴타당도를 재검증할 할 필요가 있겠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King과 Emmons(1990)의 정서표현의 양가성 척도에서 사용한 문항 제시 방법, 즉 각 문항에 긍정적 태도와 부정적 태도를 함께 제시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는데, 후속 연구에서는 긍정적 형용사와 부정적 형용사를 각기 다른 문항에 제시하여 응답하게 하는 반분된 의미분척도의 형태를 활용하여 본 연구의 결과와 비교할 필요가 있겠다.

이러한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결혼률이 감소하고 저출산 문제가 사회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시점에서 한국 미혼 여성의 결혼에 대한 태도를 측정하는 척도를 개발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특히 많은 여성들이 결

혼에 대해 양분화된(긍정적 혹은 부정적) 태도를 가지기 보다는 양가적 태도를 가진다는 점을 고려하여 국내에서 처음으로 결혼에 대한 양가태도를 측정하는 척도를 개발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앞으로 AAMS를 사용하여 여성의 결혼양가태도와 관련한 변인 그리고 여성과 남성의 결혼양가태도간의 유사점과 차이점 등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결혼률과 저출산 문제를 다룰 수 있는 효과적인 프로그램 및 정책을 개발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국가통계포털 (2017). 장래가구추계. <http://meta.narastat.kr/metascv/svc/SvcMetaDcDtaPopup.do?orgId=101&confmNo=101062&kosisYn=Y>에서 2019. 5. 30 자료 얻음.
- 국가통계포털 (2018).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http://meta.narastat.kr/metascv/svc/SvcMetaDcDtaPopup.do?orgId=118&confmNo=118020&kosisYn=Y>에서 2019. 5. 30 자료 얻음.
- 권민혁, 김은하, 신희천 (2017). 한국판 친밀감에 대한 두려움 구성요소 척도의 타당화. *상담학연구*, 18(6), 1-18.
- 김민선, 서영석 (2016). 고학력 기혼 여성들의 진로지속 동기 척도 개발 및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8(1), 63-88.
- 김성현 (2004). 친밀 관계 경험 검사 개정판 타당화 연구: 확증적 요인분석과 문항반응이론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은하, 정채영 (2016). 여대생의 완벽주의와 성인애착에 따른 집단분류: 외모불만족, 외모지향성, 이상섭식행동, 우울 및 삶의

- 만족도에 대한 집단 간 차이. *한국여성심리학회지: 여성*, 21(1), 41-64.
- 김정석 (2006). 미혼남녀의 결혼의향 비교분석. *한국인구학*, 29(1), 57-70.
- 김혜영, 선보영 (2011). 여성의 만혼화와 결혼의향 결정요인을 중심으로. *한국사회*, 12(2), 3-35.
- 남순현 (2007). 한국형 결혼관 척도 개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3(4), 1-27.
- 백경숙, 김효숙 (2013). 대학생의 자아존중감, 성역할태도와 가족기능이 결혼관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복지학*, 18(3), 205-223.
- 성정아, 홍혜영 (2014). 대학생의 이성관계에서 불안정 성인애착이 친밀감 두려움에 미치는 영향: 거부민감성과 자기노출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6(2), 387-412.
- 여성연, 김지연 (2013). 교육대학생의 결혼의지태도의 분석을 통한 저출산 관련 정책의 접근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실과교육학회지*, 26(3), 149-163.
- 이미경, 김아름, 최성인, 남숙경, 이상민 (2010). 상담에 대한 양가태도 척도 개발 및 타당화. *상담학연구*, 11(2), 465-483.
- 이상람 (2019). 미혼인구의 결혼관련 태도. *보건복지포럼*, 268, 6-18. <https://www.kihasa.re.kr/web/publication/periodical/view.do?menuId=48&tid=38&bid=19&aid=424&ano=2>에서 2019. 5. 30 자료 얻음.
- 이세영, 홍달아기 (2014). 대학생의 결혼관과 출산의지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9(2), 3-28.
- 이정하, 박정윤, 윤나나 (2017). 비혼 선택의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특성 탐색을 위한 질적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23(2), 183-214.
- 전검구, 최상진, 양병창 (2001). 통합적 한국판 CES-D 개발.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6(1), 59-76.
- 정윤경, 김경희, 배진아, 김찬아 (1997). 우리나라 성인의 결혼관 연구: 성별, 결혼여부별, 지역별 비교 분석, *연구논집*, 32, 49-92.
- 주영희, 정은숙, 심문숙 (2013). 대학생들의 결혼 및 자녀 가치관과 성태도 관련성 연구. *디지털융복합연구*, 11(9), 267-278.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6). 미래세대의 결혼·출산 친화적 가치정립을 위한 종합연구.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8). 2018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 복지 실태조사.
- 홍세희 (2000). 구조방정식 모형에 있어서 적합도 선정 기준과 그 근거.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9(1), 161-177.
- Ajzen, I. (1985). From intentions to actions: A theory of planned behavior. In I. J. Beckmann, *Action Control: From Cognition to Behavior* (pp. 11-39). Berlin Germany: Springer-Verlag.
- Ajzen, I., & Fishbein, M. (1980). *Understanding attitudes and predicting social behavior*. Englewood Cliffs, NJ: Prentice Hall.
- Amato, P. R., & DeBoer, D. D. (2001). The transmission of instability across generations: Relationship skills or commitment to marriage?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3(4), 1038-1051.
- Braaten, E. B., & Rosen, L. A. (1998).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Marital Attitude Scale. *Journal of Divorce & Remarriage*, 29(3), 83-91.
- Brennan, K., Clark, C., & Shaver, P. (1998).

- Self-report measurement of adult attachment: An integrative overview. In J. Simpson and W. Rholes (Eds.), *Attachment Theory and Close Relationship* (pp. 46-75). New York: Guilford.
- Fraley, R. C., Waller, N. G., & Brennan, K. G. (2000). An item response theory analysis of self-report measures of adult attachmen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8*, 350-365.
- Gabardi, L., & Rosen, L. A. (1991). Differences between college students from divorced and intact families. *Journal of Divorce & Remarriage, 15*, 175-191.
- Gabardi, L., & Rosen, L. A. (1992). Intimate relationships: College students from divorced and intact families. *Journal of Divorce & Remarriage, 18*, 25-56.
- Gubernskaya, Z. (2010). Changing attitudes toward marriage and children in six countries. *Sociological Perspectives, 53*(2), 179-200.
- Higgins, L. T., Zheng, M., Liu, Y., & Sun, C. H. (2002). Attitudes to marriage and sexual behaviors: A survey of gender and culture differences in China and United Kingdom. *Sex Roles, 46*(3-4), 75-89.
- Kachadourian, L. K., Fincham, F., & Davila, J. (2005). Attitudinal ambivalence, rumination, and forgiveness of partner transgressions in marriage.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31*(3), 334-342.
- Kaufman, G. (2005). Gender role attitudes and college students' work and family expectations. *Gender Issues, 22*(2), 58-71.
- King, L. A., & Emmons, R. A. (1990). Conflict over emotional expression: Psychological and Physical correlat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8*, 864-877.
- Kinnard, K. L., & Gerrard, M. (1986). Premarital sexual behavior and attitudes toward marriage and divorce among young women as a function of their mothers' marital statu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8*(4), 757-765.
- Mosko, J. E., & Pistle, C. (2010). Attachment and religiousness: Contributions to young adult marital attitudes and readiness. *The Family Journal, 18*(2), 127-135.
- Sobral, M. P., & Costa, M. E. (2015). Development of the Fear of Intimacy Components Questionnaire (FICQ). *European Journal of Psychological Assessment, 1*(1), 1-8.
- Stevens, J. (2002). Applied multivariate statistics for the social sciences. Lawrence Erlbaum Associates. Inc. New Jersey.
- Park, S. S., & Rosen, L. A. (2013). The Marital Scales: Measurement of intent, attitudes, and aspects regarding marital relationships. *Journal of Divorce & Remarriage, 54*(4), 295-312.
- Pearl, M. L., & Galupo, M. P. (2007).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Attitudes toward Same-Sex Marriage Scale. *Journal of Homosexuality, 53*(3), 117-134.
- Priester, J. R. & Petty, R. E. (1996). The gradual threshold model of ambivalence: Relating the positive and negative bases of attitudes to subjective ambivalenc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1*(3), 431-449.
- Radloff, L. S. (1977). The CES-D scale: A self-report depression scale for research in the general population. *Applied Psychological*

- Measurement*, 1(3), 385-401.
- Riggio H. & Weiser, D. (2008). Attitudes toward marriage: Embeddedness and outcomes in personal relationships. *Personal Relationships* 15(1), 123-140.
- Reis, S., & Grenyer, B. F. S. (2004). Fear of intimacy in women: Relationship between attachment styles and depressive symptoms. *Psychopathology*, 37, 299-303.
- Rholes, W. S., Simpson, J. A., & Friedman, M. (2006). Avoidant attachment and the experience of parenting.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32(3), 275-285.
- Scott, W. A. (1966). Measures of cognitive structure. *Multivariate Behavior Research* 1, 391-395.
- Sobral, M. P., & Costa, M. E. (2015). Development of the Fear of Intimacy Components Questionnaire (FICQ). *European Journal of Psychological Assessment*, 31, 302-309.
- Tabachnick, B. G., Fidell, L. S., & Osterlind, S. J. (2001). Using multivariate statistics. New York: Pearson.
- Toomey, E. T., & Nelson E. S. (2001). Family conflict and young adults' attitudes toward intimacy. *Journal of Divorce & Remarriage*, 34(3-4), 49-69.
- 1차원고접수 : 2019. 10. 18.  
심사통과접수 : 2019. 12. 19.  
최종원고접수 : 2019. 12. 29.

##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Ambivalent Attitudes toward Marriage Scale for Unmarried Korean Women

**Eun-Ha Kim**

Ajou university

**Hye-Yoon Choi**

Korea National Open University

**Min-Hyuck Kwon**

Ajou university

By focusing on the notion of ambivalence in attitudes, which has been a focus of social science field,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velop and validate the Ambivalent Attitudes toward Marriage Scale for Korean Unmarried Women (AAMS). For this, based on the literature review and the results of the open-ended questionnaire, and through expert review, we developed 23 items for AAMS. Then, we conducted exploratory factor analysis in a sample Korean unmarried women who were in a heterosexual relationship and found 2-factor structure, 18 items. We also tested the construct validity through confirmatory factor analyses in two different samples, and the results reconfirmed the 2-factors structure, 18 items. In addition, convergent and concurrent validities were examined via correlations with measures of marriage intent, marriage attitudes, fear of intimacy, and avoidant attachment. Based on our study results, we discussed academic implication, ways to use AAMS, and suggestions for future research.

*Key words* : Marriage, Ambivalence, Instrument development, Validation